

자료명	2023 탄소중립과 에너지정책 국제세미나 개최
엠바고	4월 26일(水)자 朝刊부터(통신, 인터넷 등은 4/25(火) 12:00부터)
문의처	탄소중립팀 김녹영 실장(010-3001-9667), 이시형 과장(010-9920-0745)

탄소중립 해법 모색 위해 글로벌 지성들 한자리에

- 대한상의, 5월 3~4일 양일간 ‘2023년 탄소중립과 에너지정책 국제세미나’ 개최
- 한덕수 국무총리, 이회성 IPOC 의장, 헬렌 클락슨 Climate Group 대표, 루쓰 샤피로 CAPS 공동의장 등 참여
- 마이크로소프트·삼성·SK·현대·LG·포스코 등 글로벌 선도기업 참여해 비즈니스 도전과제와 기회 논의
- 상의, ‘한국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탄소중립 전략보고서’ 제작... 정부에 전달 예정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5월 3~4일 양일간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Innovation Solutions for Net Zero’ 를 주제로 ‘2023 탄소중립과 에너지정책 국제세미나’ 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해 4차례 ‘탄소중립과 에너지정책 세미나’ 를 개최했다. 국내 탄소중립을 위해 정부와 기업뿐만 아니라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해법을 찾아보자는 목적으로 진행됐다.

연이은 세미나 개최를 통해 국내 100여 명의 전문가들과 이해관계자들이 탄소중립에 대한 의견을 모았고 이렇게 축적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탄소중립 전략 보고서’ 를 작성했다. 보고서에는 탄소중립 실현 앞당기기 위한 100대 과제 등이 포함되어 있어 정부에도 전달될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글로벌로 시야를 넓혀 국제세미나로 한 층 발돋움 했다. 탄소중립과 기후 환경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과 전문가 그리고 글로벌 선도 기업들을 초청하여 생생한 탄소중립 실천 사례를 듣고 글로벌 연대를 통한 탄소중립 달성 방안 등에 대해서 정보를 나누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이회성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의장, 헬렌 클락슨(Helen Clarkson) Climate Group 대표, 루쓰 샤피로(Ruth Shapiro) CAPS(Centre for Asian Philanthropy and Society, 아시아자선사회센터) 공동의장,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Maria Castillo Fernandez) 주한유럽연합(EU)대사, 캐서린 레이퍼(Catherine Raper) 주한호주대사, 알프레도 카를로스 바스쿠(Alfredo Carlos Basco) 주한 아르헨티나 대사, 오윤 산자수렌(Oyun Sanjaasuren) GCF(Green Climate Fund) 사무국장(인도 前환경부 장관) 등 기후환경 분야의 글로벌 지성들이 대거 참여할 예정이다.

첫째 날 세미나의 문은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열 계획이다. ‘넷제로,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함께 가는 길’을 주제로 TED식 기조강연에 나선다. 이어 이회성 IPCC 의장이 강연을 통해 지난 3월 발표된 IPCC 제6차 기후변화 평가·종합보고서(AR6) 내용을 소개할 예정이다.

오후 세션에서는 글로벌 RE100 캠페인을 주도하고 있는 Climate Group의 대표인 헬렌 클락슨이 발표에 나선다. 글로벌 기업들이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SteelZero, ConcreteZero 등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비즈니스 섹터의 이니셔티브들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어 MicroSoft, 삼성전자, 현대자동차그룹, (주)LG, 포스코, BASF, SK(사회적가치연구원) 등 국내·외 선도기업들이 직접 참여해 자사의 탄소중립 전략과 이행과제를 비롯해 기후위기해결을 위한 글로벌 연대에서 기업의 역할과 정책방향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Energy Development Corporation(필리핀), ANJ Group(인도), Hang Lung Properties(홍콩), Miniwiz(대만), Kasikornbank(태국) 등 아시아 대표 기업들도 함께한다.

둘째 날인 4일에는 한국의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과 기본계획을 소개하고, EU, 호주, 아르헨티나 등 외교 대사들과 GCF 등 국제기구 관계자가 참여해 글로벌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각국의 전략과 도전과제를 공유할 예정이다.

당일 오후 세션에서는 자밀라 마흐무드 말레이시아 썬웨이대학교 지구보건센터 이사, 고려대학교 박호정 교수, 단국대학교 조홍중 교수, 부경대학교 이지웅 교수 등이 참여해 비즈니스 차원의 기회 요인을 공유하고, 탄소중립 기술·제품·서비스 확산을 위한 정책과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장성은 Yolk 대표, 이철 로우카본 대표, 김진성 투파더 대표 등 탄소중립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기업 대표들도 참여해 탄소절감 기술을 활용한 스타트업들의 활약과 탄소중립 스타트업들의 어려움을 논의할 계획이다.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이번 국제세미나는 한국 탄소중립 추진 전략과 과제를 국제사회와 공유해 새로운 해법을 모색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5월 25일 부산에서 개최되는 기후산업국제박람회(WCE)부터 2030 부산 국제박람회까지 연계되는 탄소중립 기획 행사인 만큼 기업과 국민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고 말했다.